

2026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

고립·은둔 청년 및 중장년 일경험 지원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2026. 3. 26.(목) 10:00

장소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

주최 경기도의회·경기도



시간		소요 (분)	주요 내용	
부터	까지			
10:00	10:05	5'	개회안내	우인철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청년지원팀장
10:05	10:15	10'	축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문형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10:15	10:20	5'	사진촬영	다함께
10:20	11:00	40'	주제발표	모세종 지속가능경영재단 본부장
11:00	12:00	60'	토론	좌장 김재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토론 1 유현주 사회적협동조합 내비두 이사장
				토론 2 이정현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학교 이사장
				토론 3 김선화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청년기회과 과장
				토론 4 기현주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청년본부장
				토론 5 남경아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베이비부머과 과장
				토론 6 박규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12:00	12:10	20'	질의응답	토론참여자 질의응답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경기도의회

검색

차 례

CONTENTS

주제발표	3
고립·은둔생활인(청/중장년) 일경험모델제언 모세종 지속가능경영재단 본부장	
토론 1	29
고립·은둔 청·중년의 지속 가능한 회복을 위한 '성장형 일경험' 제언 유현주 사회적협동조합 내비두 이사장	
토론 2	33
고립·은둔인 일경험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이정현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학교 이사장	
토론 3	39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현황 및 발전방안 김선화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청년기회과 과장	
토론 4	45
고립·은둔 청년지원 생태계 조성을 고민하며 기현주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청년본부장	
토론 5	51
경기도 고립·은둔 중장년 일경험 지원방안 남경아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 베이비부머기회과 과장	
토론 6	57
고립·은둔 청년 및 중장년 일경험 지원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박규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메 모	62

주제발표

고립·은둔생활인(청/중장년) 일경험모델제언

모세종 지속가능경영재단 본부장

4 고립·은둔 청년 및 중장년 일경험 지원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고립·은둔 생활인(청/중장년) 일경험 모델 제언

모세종 본부장 | 지속가능경영재단

2026. 03. 26

PART 01

일경험의 실증적 이해

1. 일경험의 정의

❖ 사회적 취약의 조건과 해결 방향

연령, 소득, 학력, 장애, 다문화, 새터민, 복지시설 생활 또는 퇴소(자립준비청년), 비행 및 범죄 경험, 가정밖 생활, NEET(실업, 학업 중단, 직업훈련 비참여) 여부 등

무기력, 고립감, 집밖 활동 안함. 희망(목표)없음, 니트 상태, 자기/생활관리 안됨. 다른 사람에 관계 무서움, 자기 비하, 결정하지 못함. 일 의미 없거나 무서움, 회사 무서움, 좋아하는 것 없음. 하고자 하는 직업/직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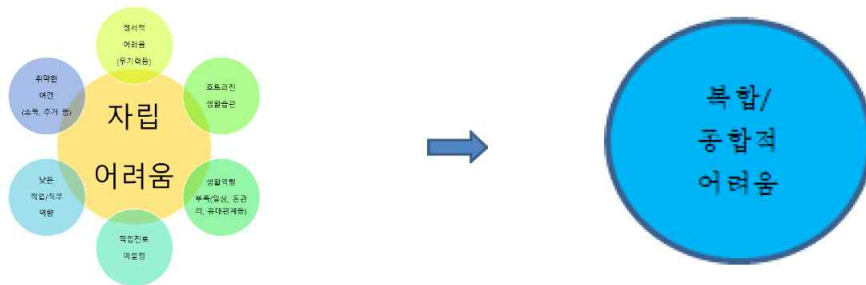
사회안전망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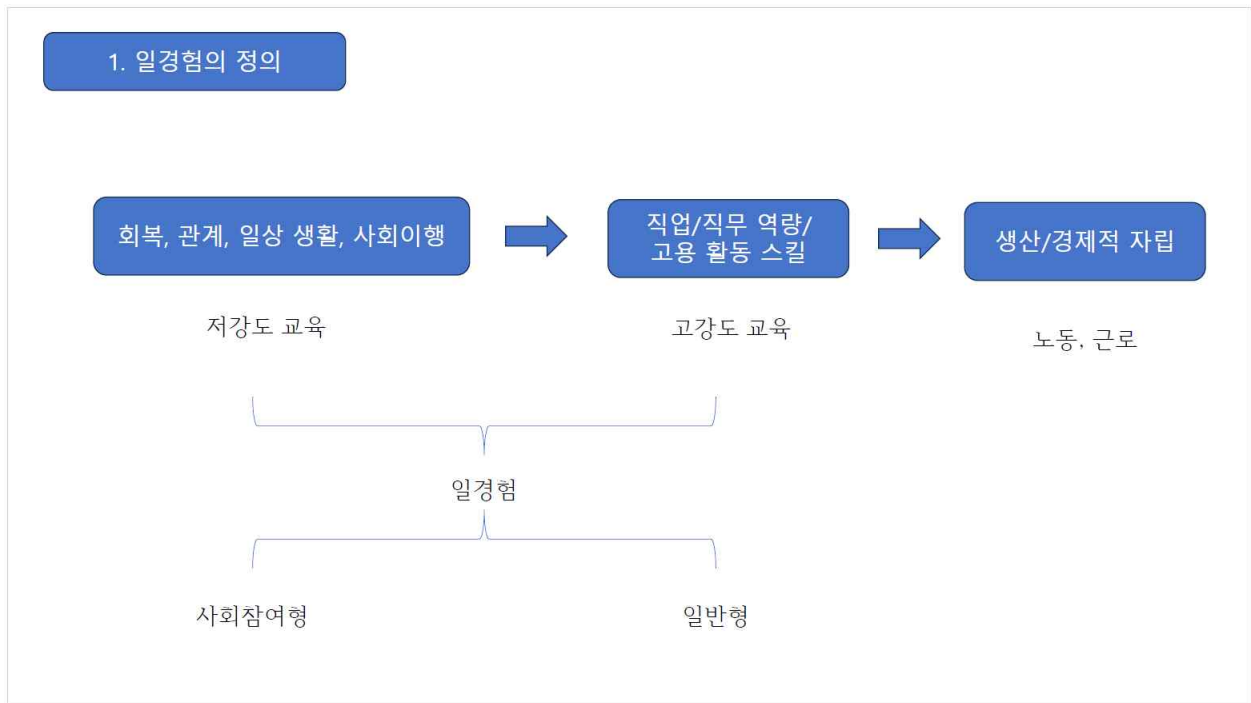


회복/관계/사회이행 확대

1. 일경험의 정의

❖ 고립은둔 생활인의 어려움





1. 일경험의 정의
- ◆ 일경험의 내용
- 회복 활동 : 자기 긍정, 관계에 대한 긍정, 건강한 자기 관리와 생활루틴 형성
 - 탐색 활동 : 일마인드, 맞는 방향, 직업/직무 설정
 - 역량 향상 활동 : 직업/직무 관련 기능, 일머리, 협업
 - 고용준비 활동 : 방향(취업/창업/진학/직업훈련 등) 설정, 고용 활동 경로 설정, 고용 활동에 필요한 역량 체득

2-1. 사례 : 공공

❖ 사례 1.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 사업 중 인턴형

운영처	고용노동부	
사업명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 사업 중 인턴형	
운영기관	수탁 민간기관	
유형	인턴형	사회참여형
방식	오프라인	온라인+오프라인
목적	실전형 직무역량 강화	진로 탐색, 직무경험 지원을 통한 점진적 사회적응
지원대상	비고용상태 청년 (주 30시간 미만 근로 가능)	○ 준비중 청년 - 기존 일경험 참여에 어려움을 겪던 구직 자신감이 저하된 청년 - 첫 직장경험 불만족 - 상향 이직 어려움 등으로 재구직을 포기한 청년
참여자 지위	비근로자	비근로자
참여기업	일반 기업	공공기관, 사회적경제(사회적 기업 등), NGO 등

2-1. 사례 : 공공

❖ 공공 사례 1.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 사업 중 인턴형

유형		인턴형	사회참여형	
지원 단계	사전 직무 교육		15시간 (소양 5, 기초직무 10)	
	본 단계	활동 기간	1회 : 4~20주, 2회까지 가능	1회 : 4~8주, 2회까지 가능
		활동 시간	주 25시간 이상	주 15~25시간 이내
		적용지원	없음	있음 (동행 면접, 동행 첫 출근, 온-오프 상담 체계 등)
		활동 내용	직무 중심	불명확
	활동 방법	오프	온-오프 가능	
사후 단계		불명확	불명확	
지원 금액	참여자	사전 직무교육	1일 10,000원	
		일경험 활동	시간당 15,000원	
	참여 기업	기업	1주 50,000원	1주 100,000원
		청년 멘토 1인당	1주 3.75만원	1주 75,000원
	운영 기관	청년 1인당	700,000원	800,000원
교육 기관	1시간 10,000원			

2-1. 사례 : 공공

사례 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의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처		여성가족부	
사업명(프로그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기관		16개 광역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유형		훈련형	
방식		오프라인	
목적		자립 동기 강화, 취업 의지 고취	
지원대상		취업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15~24세 학교밖청소년	
참여자 지위		비근로자	
참여기업		영리/비영리 사업체	
지원 기간	사전 단계	6주 소양, 기초기술훈련	
	본 단계	3개월 현장 실습	
	사후 단계	6개월	
		직업훈련, 정부 지원 프로그램 연계, 취업지원	
활동 시간		본 단계	1일 3시간
지원 금액	참여자	사전 단계 : 훈련수당 지원:10만원 이내	
	참여기업(기관)	본 단계 : 직장체험 수당 지원/100만원 이내	
직무 내용		수요한 청년 1인당 재로비 등 지원 바리스타, 미용 등	

2-1. 사례 : 공공

❖공공 사례 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의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프로세스

신청	기간	조력
↓		
진로 상담 및 적성 검사	1주	전담인력 : 출석 및 생활규칙 관리, 식사 제공, 고충 상담, 인턴십 관리 등
↓		
자립동기 부여-참여 동기 및 토래 관계성 향상	2주	
↓		
기초 기술 훈련 직업훈련(훈련수당 지원:10만원 이내) 식생활, 용돈 관리 등 생활관리 개선 프로그램	4주	
↓		
직장 체험 -청소년 작업자, 청소년 우호기업 3개월 이내(1일 3시간 이내) 직장체험 수당 지원/100만원 이내	3개월	
↓		
사후관리 직업전문훈련 -내일이룸학교 -취업성공패키지	6개월	취업연계 -취업지원

2-1. 사례 : 공공

❖ 공공 사례 3. 노원구청년일삶센터의 미취업청년일경

운영처	서울시 노원구청	
사업명(프로그램)	노원구청년일삶센터/ 미취업청년일경험지원사업	
운영기관	성공회 노원나눔의집	
유형	체험형	
방식	오프라인	
목적	사회 진출 촉진	
지원대상	19~39세 미취업청년(대학 재학생 불가)	
참여자 지위	비근로자	
참여기업	영리/비영리 사업체	
지원 기간	사전 단계	교육시간 1시간 교육
	본 단계	3개월
	사후 단계	현장 실습 불명확
활동 시간	본 단계	월 45시간
지원	참여자	○ 월 42만원 ○ 상해보험 가입
	참여기업(기관)	○ 1회 12만원
직무 내용	실무중심	

2-1. 사례 : 공공

❖ 공공 사례 사업들의 특징

구분	내용
고용노동부	○ 일경험의 목적을 구분하여 '일반형-사회참여형'으로 구성되어 있음. ○ 참여자는 '비근로자' 신분임. ○ 사회참여형의 경우 온-오프 활동을 인정함.
여성가족부	○ 사업체에서 기초기술훈련과 현장 실습 동시 수행 ○ 사전 단계의 소양교육 참여에 대한 청소년 수당 지원 없음. ○ '사전-본-사후'의 프로세스가 비교적 체계화되어 있음.
노원구청	○ 취약 청년이 참여할 수 있게 프로그램의 목적을 '사회진출'로 확장하고, 낮은 강도의 활동, 낮은 참여 조건(의지를 요구하지 않음), 유연한 참여 방식임. ○ 지역의 '사명'을 공유하는 사회적경제기업·비영리기관·영리사업체와 협업망을 구축·확장하고 있음. ○ 지역의 청년 커뮤니티가 형성·확장 됨.

2-1. 사례 : 공공

❖ 사례 사업들의 제약

구분	내용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형은 '비취약청년/일반기업', 사회참여형은 '취약청년/비일반기업'으로 구분되었음. ○ 일반형이 대부분이고 사회참여형은 매우 소규모임. ○ 사회참여형의 모델이 모호함. ○ 사회참여형의 여러 문제점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 중 청년의 정의가 협소함. - 사전 교육, 적응지원, 사후 관리가 부족함. - '저강도 긴 기간 참여'가 적합한 데, '저강도 단기간 참여' 형태임. - 참여기업의 자격에서 '포용성'을 우선해야 하는 데, 여전히 규모가 우선임. - 사전교육, 적응지원, 사후 조력, 참여기업(멘토 포함), 운영기관의 전담 인력 등 지원금이 부족함.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과 '현장실습'을 같이 하는 경우, 실제로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업종과 사업체가 제한되어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지 못함. ○ 사전단계의 소양교육 참여에 대한 청소년 수당 지원이 없어, 의욕과 의지가 낮은 취약 청소년에게 참여 동기를 낮춤. ○ 사후가 직업 훈련 및 취업 관리에 한정됨. ○ 업체의 경우 청소년이 수료해야지만 재료비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중단 위험이 높은 취약 청소년을 배제하게 됨. ○ 청소년의 참여가 프로세스 순서대로 고정화 되어 있어, '모두 참여' 하든가, 아니면 '전혀 하지 못함'의 양자 택일 방식임.
노원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의 제한으로 참여 청년과 참여기업(기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 ○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청년의 다수가 '활동 원활/적극형' 이어서 '곤란/소극 형' 취약 청년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함. ○ 사후 단계가 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의 참여가 매우 어렵게 설계되어 있고, 실제로 참여가 매우 미미함.

2-2. 사례 : 민간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생활 청소년 및 사회 진출 청소년(자립준비청년), 학교밖청소년, 만 15세 ~ 만 29세
재원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 생명보험사사회공헌위원회, 아산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자체 : 굿피플인터내셔널(모금)
운영처	<p>민간기관 협업 네트워크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기관 : 신나는조합, 굿피플인터내셔널, 자립지원센터내비두, 경기자립지원센터내비두 ○ 협업기관 : 모두의삶교육실천연구소,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아름다운가게, 꿈나무마을, 은평자준청 ○ 일경협협력기관 : 사회적경제기업 등 50여 곳
지원서비스	<p>자립역량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경험 : 교육형(회복, 탐색), 취업연계형(직업/직무 역량 강화), 전일제형(취/창업 준비) ○ 재무(용돈→부소득→소득, 맞춤 컨설팅, 재무 위기 예방 및 대응 등) ○ 관계프로그램 : 소모임·개인활동형 ○ 생활프로그램 : 좋은 생활습관과 생활 역량, 피어 멘토-멘티 ○ 정서프로그램 : 심리상담, 활동 치유 ○ 꿈프로그램 : 꿈이름, 꿈키움
	<p>유대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 소셜 다이닝 ○ 자조모임, 공동체 형성 및 활동 ○ 리더 양성
	<p>조력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코디들이 상시 조력 ○ 협업 사례관리 ○ 극취약 청년 전담 코디 조력

2-2. 사례 : 민간

일경험 프로그램		
목적	청(소)년 자립 역량 유형별 목적 실현	
	회복형	정서적 안정, 규칙적인 생활, 일 및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극복
	탐색형	직업진로 관련 마인드 형성 구체적인 직업/직무 설정
	역량형	구체적인 직무 관련 기능 및 직장 적응력 향상
	고용준비형	취업, 학업, 창업 연계
참여 청년 유형 및 인원	유형	복합 활동 곤란형과 활동 소극형이 다수 원활형과 적극형 소수
	인원	80여명
일경험 유형	복합형(회복형/탐색형/역량/고용준비형)	
제공형태	직무프로그램	오프라인
	지원프로그램	온라인+오프라인
참여자 지위	비근로자=교육생	
일경험 제공 사업체	사회적경제기업 등 50여 곳	

2-2. 사례 : 민간

지원 기간	사전 단계	기간 제한 없음, 필요한 만큼 재무, 관계, 생활, 정서, 유대 등	청(소)년 선택, 자율적 참여	코디 협업 상시지원
	본 단계	기간 제한 없음, 필요한 만큼 사업체 현장 실습 : 적응지원		
		기간 제한 없음, 필요한 만큼		
	사후단계	일경험 평가 등 사정 / 다른 프로그램 연계 등		
활동 시간	본 단계	회복, 탐색, 역량	주 15시간 이내, 월 60시간 내외	
		고용준비형	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상시제	
지원 금액	현장 실습	교육생	시간당 12,000원	
		일경험 제공기관	청년 1인당 1일 2~4만원	
	지원프로그램	교육생	재무프로그램 : 월 10만원 이내, 연 100만원 이내 관계프로그램 : 소모임·개인활동형 / 월 4만원, 연 24만원 이내 생활프로그램 : 월 10만원 이내 / 연 120만원 이내 꿈키움프로그램 : 연 200만원 이내	
직무 내용		회복형	아주 낮은 강도의 업무, 정서 지원	
		탐색형	낮은 강도의 업무, 교육(이론/실기) 병행	
		직무역량 향상형	실제 직무	
		고용준비형	실제 직무	
특징	통합 : 단절없이 계속 지원 융합 : 서비스(공통+개인별), 재원, 이용자 협업 : 주요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긴밀하게 협업(플렉티브 임팩트 방식)			

2-2. 사례 : 민간

❖ 민간 사례의 특징

구분	내용
맞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청년의 상태를 정확.세밀히 파악하여 직업진로 역량을 유형화 ○ 참여자의 상태를 파악하면서 '고용준비형 → 역량 향상형 → 탐색형 → 회복형' 순서로 개발 ○ 일경험 역량의 향상에 맞추어 상위 유형 참여
회복/사회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 관계, 재무, 생활, 꿈 프로그램 제공
중장기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1년 최대 3년간 참여 기회 제공 ○ 지원 기간 동안 원하는 때, 수시로 참여
높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작 단계 : 니트 비율 59% ○ 종료 후 : 니트 비율 2%

2-3. 고립은둔 중장년 일경험 사례

고립은둔 중장년 일경험의 경우
공공/민간의 사례 아직 없음.

3-1. 일경험 진단 :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자 취업역량평가 척도>

영역	평가지표	문항수
1. 구직의지	1)구직목표수립	5
	2)일자리수용태도	4
	3)구직행동	6
2. 구직장애요인	1)가족부양	2
	2)경제적 취약성	2
	3)근로가능시간	2
	4)지리적위치	2
3. 건강상태	1)종합	1
	2)정신	2
	3)신체	1
4. 구직역량평가	1) 배경요인	필수2개, 선택5개
	2)직업능력	필수3개, 선택3개
	3)취업이력	2개

➡ 대부분이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고, '역량'을 고려하지 않아 변별력이 없음.

3-1. 일경험 진단 : 참여자

<아동복지시설/가정외 등 위기 청소년(24세 이하) 자립 준비 척도 중 '진로탐색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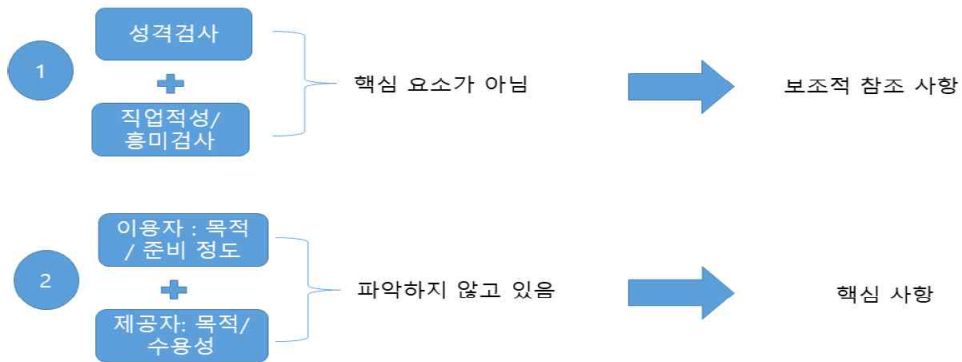
1. 자기 이해 및 목표 설정
 나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강점/소질) 알고 있다.
 나는 내가 어떤 일에 흥미가 있는지 알고 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어떤 공부나 준비가 필요한지 알고 있다.

2. 정보 탐색 및 교육 활용
 나는 직업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알고 있다 (예: 워크넷, 잡코리아 등).
 나는 자격증 취득 방법이나 직업 훈련 과정(내일배움카드 등)에 대해 알고 있다.
 나는 나에게 맞는 직업 교육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방법을 안다.
 나는 직업 체험이나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안다.

3. 실전 구직 기술
 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
 나는 면접 시의 복장, 예절, 답변 방법 등 면접 준비 사항을 알고 있다.
 나는 직장 생활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절(시간 엄수, 인사 등)을 알고 있다.
 나는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과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최저임금 등)를 알고 있다.

➡ '영역, 평가지표, 문항'이 비체계적이어서 타당하지 않음.

3-2. 일경험 진단 : 참여자와 일경험제공기관



4-1. 미스매칭 : 참여자

참여 가능성 판별 불가

현재 상태에서 일경험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부적절하여 다른 치료가 먼저인지 판별하는 기준이 모호함.

적절한 목표 및 방식 정립 실패

참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개인의 상태와 역량에 맞는 적절한 단기 목표, 진행 방식, 근무 형태를 정립해주지 못하고 있음.

4-2. 미스매칭 : 제공기관



단순 노동력으로 취급

일경험 사업을 인건비가 지원되는 '보조 인력 지원 사업'으로 오해하여, 교육과 회복이 아닌 단순 근로를 함.



포용성 과약 부재

기관이 고립은둔인을 포용할 수 있는 조직 문화와 참여 목적을 파악하지 않고, 유형화하지 않음.

4-3. 미스매칭 : 결과

참여자는 다시 위축되고,
기관은 부담을 느껴
양측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
초래함.



낮은 효과

5. 일경험 관련 두가지 양태

구분	일반 일경험 (Type 1)	사회참여형 일경험 (Type 2)
지원 대상	역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일반 청년	낮은 일경험 역량 등 복합적으로 자립 역량이 현저히 낮은 청년
목표 1	직업 역량 향상	심리적 회복 및 사회 이행
목표 2	최종 고용 (취/창업 등)	일반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직업진로 역량 확보

구분	일반 일경험 (Type 1)	사회참여형 일경험 (Type 2)
진행 방식	제공기관 발굴 후 참여자 선발·매칭 (기업 중심)	참여자 선발 후 상태에 맞는 기관 발굴·매칭 (참여자 우선 중심)
제공기관 선발 기준	외형적 스펙, 즉시 투입 가능 상태 (일반 기업 선호)	사회적 취약자에 대한 포용성 정도 (사회적경제조직, 사회복지기관, 비영리단체 위주)

5. 일경험 관련 두가지 양태

구분	일반 일경험 (Type 1)	사회참여형 일경험 (Type 2)
교육 방향	기초 직무 중심, 스킬 교육 위주	직무 스킬보다는 관계 역량 중심 교육
제공기관 선발 기준	비전문적 지원 (출결 체크, 간단한 소통, 행정적 고충 처리 등)	전문적 적응 지원 (스트레스 관리, 심리 상담, 활력 프로그램, 자조모임 연계, 적극적 갈등 중재 등)

구분	일반 일경험 (Type 1)	사회참여형 일경험 (Type 2)
종료 후 사후 지원	단순 취업 여부 확인, 기본적인 애로 사항 지원 수준에서 소극적으로 종료되거나 단절	개별 상태에 맞는 후속 직업진로 활동을 안내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

일경험 모델 설계 전략

1. 연구 결과

박은하외.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2026.1.),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의 일경험 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경기도의회

- '발굴-심리상담-개인활동-그룹활동-일경험'과 같은 단계별 서비스 지원이 아닌 모듈형 맞춤 지원으로 설계되어야 함.
- 참여자의 상황에 맞춰서 서비스를 유연하게 제공해야 함.
- 공공성, 지속가능성, 공동체성 등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운영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할 것임.
- 고립·은둔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의 성과 지표를 새롭게 개발해야 함.

2. 왜 '일경험'인가? : 4대 핵심 가치

1. 회복
자기 긍정의 자아성과 좋은 생활 루틴 형성
2. 사회성 형성
타인에 대한 공포 해소 및 안전한 유대감 체득
3. 직업 마인드 체득
일의 의미, 가치, 보람, 즐거움, 성취, 협동 등의 경험
4. 직업진로 비전 정립
자신의 직업진로를 만들어가는 역량 체득

3. 성공을 위한 3대 원칙 및 요소

성공 핵심 3대 요소

- ✓ 정확한 진단 기반 유형화
- ✓ 포용적 일경험 제공기관 발굴/육성
- ✓ 합리적인 일경험 유형 설계

성공을 위한 3대 원칙

1. 낮은 강도 & 장기간 경험: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고 지속성을 확보
2. 최적의 매칭: 당사자 유형과 기관 유형의 조화
3. 통합 체계: 사전 교육 - 적응 지원 - 사후 조력의 연속성

4-1. 유형화 : 고립은둔인

❖ 고립은둔인의 4가지 유형, 상태, 지원 내용

유형 (마인드발달 단계/일경험 준비 정도/ 일경험 자가 평가 종합)			참여자상태	지원 내용
구분	심리적 어려움	희망 직업/직무		
매우 곤란형	높음	없음	직업진로 활동 의사가 있으나 일상적인 자기 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	회복(정서, 관계) > 탐색
곤란형	조금 높음	없음	구체적인 직업/직무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탐색 > 회복(정서, 관계)
양호형	낮음	있음	구체적인 직업/직무를 설정하고 있으나 직무 역량이 낮은 상태	직무 역량 향상 > 회복(정서, 관계)
원활형	매우 낮음	있음	직업 활동 경력, 자격증 등을 일정 수준 이상의 직무역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	고용 준비스킬 > 직무 역량 향상 > 회복(정서, 관계)

4-2. 유형화 : 제공기관

❖ 일경험 제공기관의 4가지 파트너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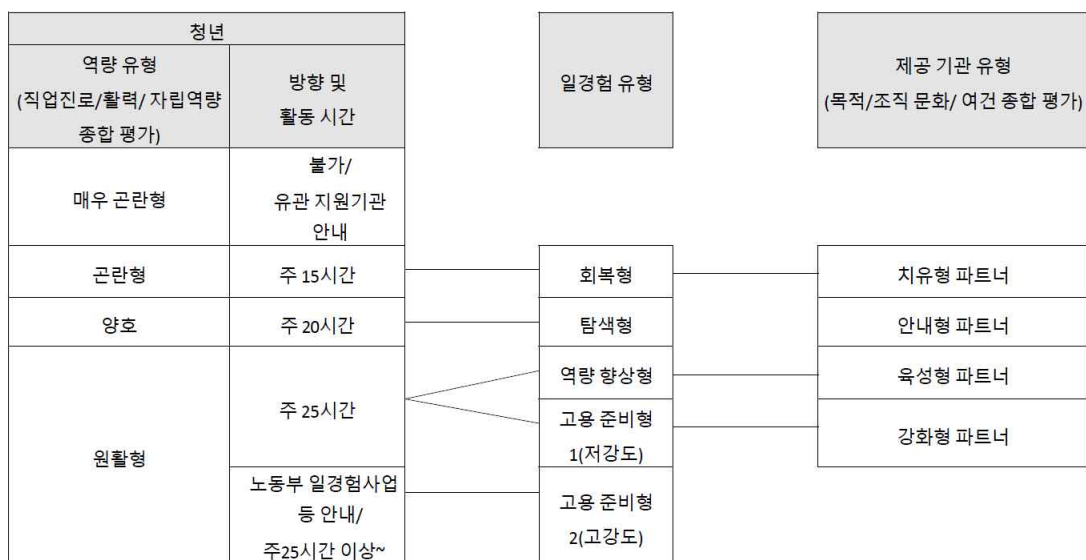
유형	내용	핵심 환경 및 태도
치유형 파트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의 모든 취약점(지각, 대인기피 등)을 수용함. ○ 헌신적인 멘토가 있음. ○ 경영책임자가 적극적이며, 다른 구성원(직원, 조립원, 구성원) 전반이 우호적임. 	<p>"좋은 생활 루틴의 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평적이고 존중하는 소통 문화 - 명확하고 투명한 업무 지시 - 최소한의 스트레스 업무 환경
안내형 파트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인 자기 관리와 규율 준수를 요구함. ○ 소통과 코칭을 잘하는 멘토가 있음. ○ 경영책임자가 적극적이며, 우호적인 구성원이 있음. 	<p>"좋은 탐색의 즐거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연성 또는 관용 - 체험과 학습 중심 - 재미, 의미, 보람 있는 경험
육성형 파트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고 배워려는 의지를 요구함. ○ 트레이닝을 잘하는 멘토가 있음. ○ 경영책임자, 또는 담당자가 적극적임. 	<p>"작은 성공의 반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과 입직 로드맵 명확 - 성과 압박이 낮은 업무 부여 - 잦은 칭찬과 즉각적인 긍정적 피드백
강화형 파트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인 기능 정도, 경력, 적극적 태도를 요구함. ○ 과업 수행 과정을 잘 관리하는 멘토가 있음. ○ 경영책임자, 또는 담당자가 적극적임. 	<p>"실질적 역량의 체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이상의 과업 부여 - 칭찬과 함께 비판도 하는 피드백 - 실제적인 고용 로드맵과 스킬 제공

4-3. 유형화 : 일경험

❖ 일경험의 4가지 유형

유형	목표	참여자상태
회복형	정서적 안정, 규칙적인 생활, 일 및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극복	직업진로 활동 의사가 있으나 일상적인 자기 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
탐색형	직업진로 관련 마인드 형성 구체적인 직업/직무 설정	구체적인 직업/직무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직무 역량형	구체적인 직무 관련 기능 및 직장 적응력 향상	구체적인 직업/직무를 설정하고 있으나 직무 역량이 낮은 상태
고용준비형	고용활동(취업, 창업 등) 역량 향상, 고용활동 실행 준비	직업 활동 경력, 자격증 등을 일정 수준 이상 의 직무 역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

5. 매칭 최적화



6. 운영 프로세스

❖ ‘연속-연계-통합’ 프로세스 3단계



6. 운영 프로세스

❖ ‘연속-연계-통합’ 프로세스 3단계



6. 운영 프로세스

참여자 모집 및 확정	사전 교육 및 참여 유형 확정	일경험 제공 기관 발굴	일경험 매칭 및 약정 체결	일경험 활동 및 적용 지원	사후관리 (종료 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 : 일경험 준비 역량 정도 파악 ○ 설명회 실시 (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교육 실시 - 소양+기초직무 ○ 참여 유형 확정 - 회복형/탐색형/직무 역량 향상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용성 정도 등 파악 ○ 준비 교육 (온라인) ○ 수행 계획서 작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자 면접 - '온/오프' ○ 약정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날 동행 출근 ○ 적용지원 - 상담(심리/조력) - 활력(루틴/관계) - 스트레스 관리 - 갈등 조정 - '온/오프' 방식 ○ 재무 관리 지원 ○ 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상태에 맞게 다음 단계 참여 지원 - 고용활동 - 직업훈련 - 상위 직업진로 프로그램 - 민간 지원 프로그램 - 기타





6. 운영 프로세스

❖ 본 단계

일경험 활동

구분	내용
참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일하는 태도와 자세 등을 배움 - 규칙적인 출/퇴근, 규율 준수, 소통과 협동을 통해 생활과 사회 활동 역량을 키움.
제공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배울 수 있도록 강의, 실습, 코칭을 제공함. - 정서적 조력(안전감, 친밀감, 소속감)을 제공함.

적용 지원

-  마음돌봄(개인/집단 심리상담), 스트레스 관리 및 완화
-  개인별 조력 상담 및 활동
-  함께 활동
-  재무 관리 교육 및 코칭

6-1. 운영 프로세스

❖ 준비 단계

➤ 충분한 사전 준비 교육 제공

분야
기초 회복 교육(심리 안정, 관계 형성)
기초 직업진로 교육 (직업/기업/노동관계/노동인권)
기초 직무교육(일하는 규율/함께 일하는법/ 고객 관계법/일머리 알기)
특화형 직무교육(3개 분야)
자원봉사 교육

6-2 운영 프로세스

❖ 활동 단계

➤ 낮은 강도의 장기간 경험 제공

시간적 저장도

주 15시간 (초단기/초기 진입용)

주 20시간 (중간 적응 단계)

주 25시간 (역량 강화 단계)

방식의 저장도

온라인형 (재택근무 위주)

온-오프라인 병행형 (하이브리드)

오프라인형 (안전한 공간 내)



최소 1년 이상~
3년

가상회사

실제 회사

6-2. 운영 프로세스

❖ 활동 단계

➤ 다양한 활동 분야

구분	내용
자원봉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 내용·방식과 참여자의 상태 등을 고려 ❖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하여 활동 기관 발굴
특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립·은둔인이 특성에 맞게 - 비대면(온라인/오프라인), 단시간, 돌봄
종합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복-탐색-역량-고용'을 한 곳에서 ❖ 중·장기적으로
지원가 성장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립·은둔 지원가로 양성(자원활동자, 실무자, 활동가)
사회기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에 기여하는 일, 일의 의미를 찾는 일 ❖ 사회적경제조직, 사회복지기관(시설), 비영리단체에서

6-3. 운영 프로세스

❖ 종료 단계




➤ 상태에 맞게 다음 단계 참여 지원

구분	방향	유관 기관/사업			
고용활동 가능	취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창업	청년창업지원사업			
	학업	중앙청년지원센터 등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필요 높은 수준의 일경험 참여 필요	내일배움카드 노동부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 인턴형(사회참여형, 일반형)			
차년도 일경험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직업/직무의 높은 수준의 일경험 필요 ○ 같은 직업/직무의 같은 수준의 일경험 필요 ○ 같은 직업/직무의 높은 수준의 일경험 필요 ○ 다른 직업/직무 탐색의 일경험 필요 ○ 회복을 위한 일경험 필요 				
기타	장기간의 종합 지원 병행 및 낮은 강도일경험 필요(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인 경우)	자활근로사업 - 일반자활근로 - 청년자립도전사업단			
	비교적 높은 강도의 지원 프로그램 참여 가능	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낮은 강도의 지원 프로그램 참여 가능	노동부 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가능	고립·은둔 지원기관 등			
	학업 중단인 경우	<table border="1"> <tr> <td>24세 이하</td> <td>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td> </tr> <tr> <td>25세 이상</td> <td>청년센터등</td> </tr> </table>	24세 이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5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5세 이상	청년센터등				



7. 진단 체계

❖ 1·2차 진단을 위한 평가 영역

1차 진단 (사전 매칭용)

-  활력 지수: 고립·은둔 원인 및 현재 침잠 정도 파악
-  자립 역량: 일상 자립 및 기초 재무 역량 평가
-  직업진로: 일경험 준비 정도 및 희망 직무 분야 탐색

2차 진단 (사후 관리용)

-  수행 효과 파악: 참여 후 일경험 수행에 대한 자가 평가 및 멘토 평가 교차 검증
-  후속 로드맵: 종합 효과를 평가하여 맞춤형 사후 조력 계획(타 사업 연계 등)에 반영

7. 진단 체계

구분	검사지명	목적
활력	고립·은둔 유형	청년의 고립·은둔 발생 원인, 계기, 진행 단계 파악
	고립·은둔 정도	청년의 고립·은둔의 정도 및 특징 파악
자립	자립 역량	청년의 자립 역량의 정도와 특징 파악
	재무 역량	청년의 재무 역량의 정도와 특징 파악
직업진로	일경험 준비 정도	청년의 일경험 수행 역량의 정도와 특성 파악
	일경험 수행 평가(자가)	청년의 일경험 수행 역량의 정도와 특성, 희망사항 파악
	일경험 참여자 수행 평가(제공기관)	

8. 협력 체계

❖ 다자간 협력 체계(거버넌스) 구축



PART 03

정책 제언

구분	상황	제언
청년기획과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중 일경험 프로그램	일경험 프로그램의 고도화와 확대
복지 정책과	은둔형외톨이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2027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으로 고립·은둔 중장년 일경험사업 채택
	2026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으로 고립·은둔 중장년 일경험사업 채택(예산 미책정)	
베이부부머 기획과	중장년 인턴십 지원사업	고립·인둔인이 참여할 수 있는 유형 마련
경기도일자리재단	2026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인턴형:일반형)	2027 미래내일 일경험사업(인턴형)에 '일반형+사회참여형' 추진
복지사업과	자활근로사업과 청년자립도전사업 사업	두 사업에 고립·인둔인이 참여할 수 있는 유형 마련
사회적경제육성과	2026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에 사회참여형 일경험 프로그램 추진 명시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선제적으로 사회참여형 일경험 추진 방안 마련

감사합니다

토론1

고립·은둔 청·중년의 지속 가능한 회복을 위한
'성장형 일경험' 제언

유현주 사회적협동조합 내비두 이사장

고립·은둔 청·중년의 지속 가능한 회복을 위한 '성장형 일경험' 제언

사회적협동조합 내비두 이사장 유현주

1. 발제문에 대한 의견: '사람'에게 맞춘 유연한 설계가 핵심입니다

먼저 고립·은둔 청년의 일경험을 단계별 서비스가 아닌 '모듈형 맞춤 지원'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현장에서 만난 많은 고립·은둔들은 사회 복귀의 의지가 높지만, 기존의 경직된 시스템 앞에서는 좌절하곤 합니다. 당사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문턱'입니다.

- 다양한 상태에 맞는 다변화된 목표: 기존 일경험이 '취업'이라는 단일 목표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회복-탐색-역량-고용'으로 이어지는 유연한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 저강도·중장기적 관점의 도입: 고용노동부의 '미래내일 일경험' 인턴형의 경우 주 25시간 이상의 활동을 요구하는데, 이는 고립·은둔인에게는 번아웃을 초래하는 고강도 활동입니다. 발제자가 제안한 '15분, 30분 단위의 단시간 일경험'이나 가상회사형 모델은 이들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매우 실질적인 대안입니다.
- 유연한 쉼표가 있는 프로그램: 고립·은둔의 회복은 직선형, 계단식이 아닌 파동형입니다. 상태에 따라 멈추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최대 3~5년의 장기적 호흡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유연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2. 내비두의 실천: 자아성과 관계성 회복을 통한 공동체 자립

내비두는 단순히 직무기술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무너진 '자기 개념'과 '관계 자본'을 복구하는 토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회복의 핵심, 자기 개념 & 관계: 고립·은둔은 부정적 자기상과 관계의 부재에서 기인합니다. 일경험은 목표가 아니라, 유능성·자율성·관계성을 충족하여 자기 가치감과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치유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 선순환 체계: '소모임/자원봉사 리더 - 동료 지원가(경험자) - 전문 지원가'로 이어지는 체계를 통해, 도움을 받던 수혜자가 사회에 기여하는 조력자로 성장하는 '경험 전문가 양성 모델'을 지향합니다.
- 공동체 기반의 지속 가능성: 10명 중 6명이 재고립·은둔을 경험하는 현실에서, 외부 지원이 끊겨도 서로를 지탱할 수 있는 '관계 기반 공동체' 안에서 일경험이 실질적인 자립을 가능하게 합니다.

3. 정책적 보완 과제 제언

사업의 사회적 확산과 현장의 안정성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합니다.

- '과정 중심' 성과지표의 공식화: 발제자가 언급했듯 취업률과 같은 산출지표는 고립·은둔 사업에 부적합합니다. '사회적 관계망의 확장 정도'나 '자기 효능감 지수'와 같은 성과를 공식 지표로 인정하여, 현장의 활동가들이 단기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긴 호흡으로 당사자를 대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일경험 파트너(기업 및 단체)에 대한 포용적 지원: 고립·은둔인을 받아들이는 기관들이 이들을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도록 '포용적 직장 문화 교육'과 '현장 멘토링 비용' 지원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일터는 당사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 중장년 고립·은둔인을 위한 특화 모델: 청년과 달리 생계 문제와 경력 단절의 압박이 큰 중장년층을 위해, 생계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병행할 수 있는 '소득 보전형 일경험'에 대한 별도의 설계를 제안합니다.

맺으며

고립·은둔인의 일경험은 단순히 경제적 자립을 넘어, 한 인간이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숭고한 여정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인내심 있게 이들을 기다려 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2

고립은둔인 일경험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이정현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학교 이사장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

고립은둔인 일경험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이정현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학교 이사장)

1. 기관소개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학교'는 위기·자립준비·고립은둔청년의 회복/진로/자립을 지원하는 비영리협동조합입니다.

2013년 설립, 경기도 성남시 소재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연간 70여명 청년들을 개별맞춤형 밀착지원하고 있습니다.

1단계 일상회복- 2단계 진로개발- 3단계 취업과 직업적응 과정을 각 과정별 1년 이상, 전체 3년 이상 장기간 지원하여 안정적 자립이행을 지원합니다.

지원 과정에서 '수준별 일경험-인턴십' 프로그램을 주요하게 활용합니다. 2개의 자체사업장(카페)와 50여개의 협력기업/기관들과 협력하여 일경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총 520명의 위기청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참여자들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도가 15% 이상 향상되었고, 참여자의 65%가 경제활동 시작에 성공했습니다.(3단계 취업-직업적응 프로그램 기준)

2. 발제문 검토

1) 발제문은 일경험 프로그램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성격,층위들이 종합적이고 정교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존 고용지원사업들에서 일경험의 성격을 역량개발/취업준비로 단순화하는 경향이 강했던 가운데, 회복형/탐색형/역량개발형/고용준비형으로 일경험의 성격을 분류하고 있어 위기청년 지원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일경험의 실제적 성격을 충실히 조명하고 있습니다.

2) 고립은둔인들이 사회/직업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내용과 정도에 따라 유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경험 참여기업/기관의 성격을 유형화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참여자와 참여기업의 특성에 따라 매칭하는 방안에 접근하고 있는 점도 현장의 상황을 충실히 반영합니다.

3) 기존 공공/민간 영역 일경험 사업들의 구조/특성/한계들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여러 모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화할 수 있는 실제적 방안에 접근하고 있는 점이 현실성있게 느껴집니다.

3. 추가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한 점들

1) 정확한 진단의 어려움

발제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확한 진단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단기간에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기보고식 진단검사지만으로는 정확한 참여자의 상태/특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단기 프로그램에서는 참여자의 다양한 행동 특성과 숨겨진 욕구/역량 등을 발견하기에는 접촉면이 작습니다.

2) 다양한 성격을 가진 참여사업장 발굴의 어려움

일경험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적합 사업장'을 찾고 '적절히 연결'하는 것입니다. 치유형/안내형/육성형/강화형으로 사업장파트너를 구분하는 것은 유효하지만, 그런 사업장들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적합한 사업장이 있어도 그곳에 적합한 청년이 없거나, 청년이 적극적으로 원하는 직무가 있어도 해당되는 사업장이 없으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3) 후속 지원의 어려움, 후속연결과정의 정교함 필요

일정기간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후속과정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공서비스들을 연결해보지만, 상당수가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중도포기합니다.

프로그램 수료/종료 후에 안정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기 위한 절차/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렵게 얻은 성과가 소실될 수 있습니다.

4. 지원방안

1) 일경험 진입/준비과정의 기간/비중 확대

- 사회활동에 대한 어려움이 큰 계층에게 일경험 준비과정은 단지 근무를 위한 태도와 기술을 익히는 과정이어서는 안됩니다.

- '일경험'은 하나의 교육과정이며, 이것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데에 필요한 '자기이해', '동기부여', '목표설정', '실천계획', '실행관리', '참여집단 내 관계형성'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참여자들은 이러한 요소가 담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경험이 자신의 성장과 자립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인식하고, 보다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일경험에 참여하게 됩니다. 특히, 참여집단간의 관계형성과 전담관리자와의 관계형성은 일경험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효과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일경험 참여사업장 발굴 및 관리,육성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조성

일경험프로그램 운영은 단지 참여자를 잘 준비시켜서 회사에 적응하도록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적합한 기업/기관을 찾고 검증하는 일과, 참여하는 기업과 대표자/담당자를 교육하고 동기부여하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일경험 지원사업에서 참여자 관리 역할 뿐만 아니라 기업을 발굴/관리/육성하는 인력의 배정이 필수적입니다.

3) 안정적 후속과정 조력이 가능한 정책 수립

일경험 프로그램을 잘 마치는 것이 사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난이도가 낮은 일경험 프로그램 만을 반복하는 참여자도 생길 수 있고, 일경험에는 잘 적응하지만 후속 과정에는 전혀 적응하지 못하는 참여자도 많이 발생합니다.

일경험을 통해서 후속 자립이행과제에 다가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후속 과정에 적응하는 것이 온전히 참여자의 책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참여자를 가장 잘 이해하고 소통해온 일경험 담당자 등이 후속과정에서의 적응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조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후속과정 조력이 가능하도록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4) 일 부적응에 대한 인식개선

일/직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노력이 부족하다거나, 일을 하지 않아도 의식주가 가능하니 절박함이 없다고 평가하

곤 합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원인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인지적 어려움 때문인 경우도 있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경험 때문인 경우도 있고, 기술적/기능적 문제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충분한 준비과정, 연습과정, 일터에서의 낯선 경험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일에 적응해 갈수 있습니다.

일 부적응을 겪는 사람들을 태도/노력의 부족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하지 않고, 학습과 준비과정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토론3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현황 및
발전방안

김선화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청년기회과 과장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현황 및 발전방안

김선화(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청년기획과장)
2026. 3. 19.

1. 추진 배경

최근 우리 사회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고립·은둔 청년 문제가 중요한 국가적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내 고립·은둔 청년(19~39세) 비율은 약 5.9%로, 인원으로는 약 21만 6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한 구직난을 넘어선 복합적인 위기이기에, 이들의 일상 회복과 삶의 질 개선, 그리고 궁극적인 사회 통합을 돕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정책적 개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 고립은둔 청년 일경험 제공정책의 접근방식

주제 발표 내용과 같이 고립은둔 청년에 일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은 매우 섬세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단계적 일경험 설계(Step-by-Step Approach)'가 필요합니다. 사회와의 접촉 자체를 일경험의 시작으로 보는 유연함이 필요하며, 초단기·초경량 일경험이나 시뮬레이션 워크숍 등을 통해 실제 직장이 아닌 안전한 커뮤니티 공간에서 가상의 프로젝트를 먼저 수행해 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립 청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가진 일경험 제공처와의 협업을 선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실수해도 괜찮은 안전한 일터여야 하며, 단순히 일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심리적 지지대 역할을 해 줄 '조력자(멘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경험이 끝난 후 다시 재고립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3. 경기도 일경험 지원 사업 현황

경기도는 '나와(with me) 불만한 세상'이라는 이름으로 고립·은둔 청년 맞춤형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 진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일 경험 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5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참여자의 회복 단계에 맞춰 거점센터 내부에서의 연계 일 경험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외부 일 경험까지 범위를 넓혀가며 당사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지난 3월 5일에는 경기도미래세대재단, 한국승강기 안전공단과 함께 '위기청년 일 경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 특성을 깊이 이해하는 외부 기관에서 맞춤형 인턴십, 1:1 멘토링, 직무교육 등 실질적이고 안전한 직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일 경험 프로그램 참여 현황(2025년 경기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 》

구분		업무 내용	참여인원
일 경험	인턴형	기초 사무 보조 업무 - 전문가 양성교육 참여, 거점별 활동보조, 참여자 안내 및 홍보 등	15명
	아르바이트형	외부 활동 보조 업무 - 반려동물 교류활동, 나들이 활동 등	34명*

* 인턴형 중복참여자 3명 포함

4. 발전 방안

경기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25.10월)으로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에 대한 일 경험 지원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었습니다. 경기도의 일 경험 지원 정책은 개정된 조례에 근거하여 더욱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조례명	시행일
경기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5.10.10.

2026년에는 기존 단년도 용역 방식에서 발생하던 지원 공백을 해소하고자, 지역 거점 기반의 다년도(최대 2년) 공모 사업으로 전환하여 당사자 지원의 연속성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또한, 도내 3개 권역(남부 2곳, 북부 1곳)에 거점 공간

42 고립·은둔 청년 및 중장년 일 경험 지원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인 '나와봄센터'를 조성하여 일상 회복 프로그램, 전문 심리상담, 쉼터 제공 등 통합적인 지원을 상시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 시·군, 민간 기관이 함께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정례화하여 청년들의 다양한 적성과 속도에 맞출 수 있는 다각적인 외부 일경험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것입니다.

4. 맺음말

고립은둔 청년이 다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지원을 넘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도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경험 기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기도는 공공 및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권역별 거점 수행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바탕으로 고립·은둔 청년들이 각자의 속도에 맞춰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가장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토론4

고립은둔 청년지원 생태계 조성을 고민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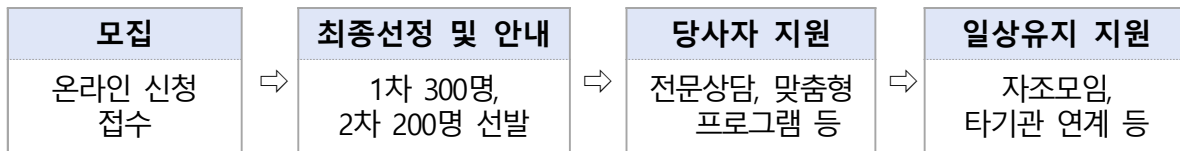
기현주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청년본부장

[토론] 고립은둔 청년지원 생태계 조성을 고민하며

기현주(경기도미래세대재단 청년본부장)

1.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지원 사업 현황

- 경기도, 작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와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500명 청년 당사자를 대상으로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시작
 - (사업예산) 연간 10억원
 - (사업대상) 경기도 19-39세 고립은둔 청년 500명 및 가족
 - (발굴 및 지원) 모집(1, 2차) → 선정 → 당사자 지원 → 일상유지 지원



*선정방법 : 온라인 신청(고립은둔 선별 척도) → 서류 적격 → 유선 상담 → 선정

- (사업내용) 당사자 및 가족지원, 전문인력 양성, 사회적 인식개선
 - ① 당사자 및 가족 지원 : 발굴, 상담, 맞춤형 프로그램, 쉼터 운영, 자조모임 운영, 가족 대상 교육
 - 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기반 구축 : 상담사·현장실무자 연수, 사업운영 매뉴얼 제작, 일본 히키코모리지원 핸드북 번역/배포, 거점기반
 - ③ 사회적 인식개선 : 인식개선 온라인 캠페인, 포럼, 성과공유회
- 2025년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지원 사업은 4개의 거점 및 쉼터(남부3, 북부1)를 통해 거점별 네트워크 및 프로그램/상담공간 활용, 별도의 상담인력 확충을 통해 심리(전문)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
 - (거점) 남부 수원시 2개소, 성남시 1개소 / 북부 의정부시 1개소
 - (심리전문상담) 상담사 대상 고립은둔청년 이해과정 교육, 수퍼비전, 필요 시 청년 1인당 6회기 전문상담 제공

2.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추진의 현실적 고민

- 한국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은 공공부문에서의 역사는 매우 짧은 것인 현실 (서울시, '1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 최근에 들어서 광역 지자체,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사업 추진
 - (중앙) 청년미래센터('24년 시범 시작, 4개 광역)_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 (지역) 서울시 기지개센터,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행) 등

-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고립·은둔 상태에 대한 정의, 이해가 여전히 진행 중으로 중앙, 지역 차원의 실태조사와 시범사업 점차 확대
 - (연구 및 조사) 복지부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23년), 고립은둔청년 지원 모형 연구('22년), 고립은둔청년 규모 추정/개념 정의 등
 - (추진사업) 정신건강 이슈가 있는 고립은둔청년을 제외한 지원사업 설계, 광역 단위 사업 추진, 지역복지관 등을 통한 프로그램 추진(서울시) 등

- 경기도, '24년 고립은둔청년 규모추정 연구와 프로그램(교육, 체험, 자조모임 / 전문상담) 시범운영을 통해 '25년 거점 중심 사업 시행
 - (모집방식) 사업기간에 따라 차수별 모집, 선정 방식으로 운영
 - (지원기간) 교육, 체험, 자조모임, 전문상담 등 3-6개월 간 지원
 - (전문인력) 지자체 공무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청년센터 종사자, 심리상담사 등 고립은둔청년 지원을 위한 현장실무자 교육을 통한 양성 시작
 - (연계자원) 용역방식 협력업체(민간 기업, 상담기관 등) 선정

- 고립은둔 청년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원구조와 지원 방식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지원, 고립은둔 청년의 관계망 형성까지 기대하기 어려운 지원 방식,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이해와 지원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의 부족 등의 어려움 확인

3. 고립은둔 청년지원을 위한 생태계 조성 관점의 추진 필요

- [발제1,2]에서 언급하였듯이, 고립은둔 지원을 위한 원칙에 대해 공공부문 지원에서도 고찰 필요
 - 본인의 페이스에 맞추면서 본인이나 가족이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본인이 목표로 하는 삶의 방법이나 사회와의 관계 방법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 '자율'이 목표
 - 지원사업의 원칙에서 '당사자 중심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을 설정, 당사자의 페이스를 중심에 두고 프로그램 지원 시기와 방식 결정

- [발제1]에서 제안하고 있는 전달체계의 구성(광역-권역-기초, 등록/비등록 기관 등)에 대해서는 단기과제와 중장기과제로, 또 국가 정책 방향과 예산 수반 등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
 - 또한 고립은둔 지원체계에서 청소년, 청년, 중장년 등 연령대/인구 코호트에 따라 특성이 다른 점에 대한 고려도 검토할 필요
 - 민간 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인증체계 도입 등은 해당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검토 등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
 - 발굴 과정에서 등록제와 신청제 병행 제안 이상적, 광역단위 전담기구의 조성을 시작으로 검토가능한 방식

- [발제2]에서 제시한 사례처럼 고립은둔(발제문에서는 히키모코모리)의 지원 사례는 스펙트럼이 넓고, 정신건강 이슈에 대한 대응 필요
 - 전문심리상담 필요하나 정신건강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별도의 체계(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와 포괄적인 상담지원(사례관리자)체계에 대한 고민 필요
 - 재고립 또한 상태로 인정,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업에 재접속할 수 있는 지원 방식 고민 필요

- 고립은둔 청년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원자 그룹의 다양성 확보 (지원서비스, 지원조직/기관, 지원유형)와 지속 연결을 위한 실현 가능한 채널(온라인, 오프라인)에 대한 고민 필요

토론5

경기도 고립·은둔 증장년 일경험 지원방안

남경아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 베이비부머기회과 과장

경기도 고립·은둔 중장년 일경험 지원방안

남경아(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 베이비부머기획과장)

① 보이지 않는 위기, 중장년 사회적 고립 정책 공백

- 경기도의 중장년(40~64세)세대는 약560만(41%) 규모로 전국에서 가장 큰 인구집단. 중장년 세대는 약20여 년에 걸쳐 있어 집단 내부의 이질감, 다양성이 매우 큼
-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고립·은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이 빠르게 확대되었지만, 대부분은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연구나 정책은 매우 부족한 상황. 광범위한 실태 조사와 욕구 분석이 축적되지 않았고 정책 대상 집단으로서의 정의도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 가장 규모가 큰 집단이면서도 정책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는 사각지대임
-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경기도가 최초로 중장년 고립 및 은둔 실태를 조사¹⁾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한 것은 의미 있는 첫걸음. 그러나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정책 전반으로 확산·정착되기에는 많은 사회적 토론과 보완이 필요함

[경기도 고립 중장년 현황]

- 경기도 내 중장년 고립 비율은 2023년 7.6%로 5년만에 약 1.4%p 증가
- 전국적으로 고립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도 고립 비율은 전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구분	중장년 고립비율		
	2019년	2023년	증가율
전국	5.4%	6.6%	약 1.2%p ↑
경기	5.8%	7.6%	약 1.4%p ↑

- ※ 통계청 사회조사('19년, '21년, '23년)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중장년의 사회적 고립 특성과 정책 과제)
- 2024년 고독사 사망자 3924명 중 40~60대가 2,508명으로 63.9% 차지
- ※ 60대(1271명·32.4%) > 50대(1197명·30.5%) > 40대(509명·13.0%)

② 중장년 사회적 고립에 관한 주요 관점

○ 중장년 '전환기'에 대한 이해

- 중장년 고립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를 생애주기상 특정 연령 구간이 아니라 '전환기'로 보는 관점 필요. 일반적으로 전환기란,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1) 박규범·김준범·박혜선(2025), 경기도 중장년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경기복지재단
박규범(2025), 경기도 중장년의 사회적 고립 특성과 정책 과제, 경기복지재단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과 재조정 의 시기를 의미.

- 특히 중장년기는 조기퇴직 또는 일자리 불안정, 자녀 독립 등 가족구조 변화, 이혼·사별 등 관계 변화, 노화 및 질병 등 건강의 변화와 같은 다층적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시기
- 즉, 중장년기는 일·소득·관계·역할·정체성이 동시에 재편되는 시기. 이러한 특성이 고립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됨. 기존 삶을 지탱하던 요소들이 약해지는 과정에서, 새로운 관계와 역할로 자연스럽게 이동하지 못할 경우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

○ 우리 사회의 구조적 특징

- 우리나라는 평균 퇴직연령이 약49.4세로,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른 편.
- 많은 중장년이 아직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시기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이후 새로운 역할을 찾지 못한 채 사회적 관계까지 약화될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우리사회 중장년 고립은 “전환기 불안정 + 조기퇴직 구조가 결합된 사회적 문제도 주요 원인으로 봐야 함

○ 중장년 고립의 두 가지 경로와 유형

- 현장에서 체감한 중장년 고립은 크게 두 가지로, 경로와 성격이 다름

✓ 유형 1 : ‘장기 누적형’ (청년기→중장년)	✓ 유형 2 : ‘전환기 붕괴형’ (중장년 진입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청년기부터 고립 경험 • 사회 진입 자체가 어려웠던 경우 • 중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정책 사각지대 또는 청년기에 받았던 서비스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기까지는 정상적인 사회생활 유지 • 퇴직, 가족 변화 등을 계기로 고립 진입 ⇒ 갑작스러운 상실 경험, 기존 관계망 붕괴, 자존감 급격히 하락

- 고립의 출발점에 따라 회복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음
- 따라서 고립 문제는 단일 정책이 아니라 생애주기 + 유형을 함께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함

○ 청년 vs 중장년 고립의 특성

- 청년과 중장년 모두 ‘고립’이라는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만, 실제 내용은 다를 것으로 판단됨.
- 청년의 경우 취업 지연, 사회 진입 어려움, 관계 형성 부족 등 즉, 아직 사회적 역할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 → “들어가지 못한 상태”
- 반면 중장년은, 이미 일을 했고 가족과 사회에서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어느 시점에서 그것들이 한꺼번에 약화되거나 사라지면서 고립이 시작됨 → “기존 삶에서 밀려난 상태”
- 이러한 차이가 정책 방향의 차별로 이어질 수 있음

③ 道 중장년 사업 중 사회적 고립과 연결될 수 있는 사업

○ 사회적 고립과 연관성이 높은 사업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음

- ①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 지역사회 기반 일 참여 기회 제공
- ② [마음돌봄 전화상담] → 정서 지원
- ③ [중장년 행복캠퍼스] → 생애전환 상담, 교육, 일활동 지원 (공간기반)

① 경기도 베이비부머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 2026년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참 여 자)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 전문인력*

* 경력 3년 이상 또는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증 소지자

- (참여기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단체 등

○ 사 업 량 : 920명 ※최근 3년('23~'25)간 참여자 3,302명, 참여기관 496개소 참여

○ 사업내용 : 퇴직 전문인력의 사회공헌활동 지원으로 지속적 사회참여 기회 제공

- 사회공헌활동분야는 총 1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된 활동 분야는 교육 연구(32.7%), 문화예술(22.7%), 상담멘토링(18.7%) 분야임

② 중장년 마음돌봄 전화상담 지원사업

□ 2026년 사업개요

○ 사업대상 : 40세 이상 65세 미만 도내 중장년

○ 사 업 량 : 320명 3,110건(전화상담 260명 2,600건 / 집단상담 60명 360건 / 사례관리 150건)

※ '21년 첫 시행 후, 5년간 중장년 1,458명에 심층 전화상담 서비스 제공, 마음돌봄특강 2,617명 참여

○ 주요내용

-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전화 상담 운영(1인당 최대 16회기, 회당 50분)

- 중장년의 사회적 연결감 회복을 위한 찾아가는 집단상담 추진(60명, 360건) 등

※ 상담전후 비교 : 우울 28.6% ↓, 불안 22.4% ↓, 자살사고 및 자살소망 19.9% ↓

주관적 불편감 67.1% ↓, 삶의 만족도 37.9% ↑

③ 중장년 행복캠퍼스(도, 시군)

□ 2026년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내 중장년(40세 이상 65세 미만) 및 공공·민간 중장년 사업기관

○ 운영공간 : 6개소 *도 직접 2개소(수원 고양)/ 시군 4개소 협성대(화성), 한서대(군포), 한경대(안성), 서경대(양주)

※ 2025년 7개소 운영, 14,641명 참여

○ 사업내용

- (도) 道 중장년 정책에 대한 통합적 기능(기획·지원협력·서비스제공·정책확산) 수행

- (시군) 생애전환기 중장년 세대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및 활동공간 제공

- 중장년 고립, 운둔 해서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의 사업들은 사업 간 연결 부족, 유형별·단계별 접근 부족, 지속성 미흡 등의 한계가 있음

4 정책방향 : '일 경험'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구조

- 중장년 고립은 조기퇴직과 생애전환 과정에서 '일과 관계가 동시에 약해지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이며, 따라서 단순 복지서비스 제공을 넘어 다시 연결되는 '일·활동 경험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함

[단계적 접근]

- 1단계: 커뮤니티 참여 (관계 회복 시작)
- 2단계: 작은 역할 수행 (부담 없는 참여)
- 3단계: 사회공헌형 일 경험 (역할 확대)
- 4단계: 유급·시장형 일자리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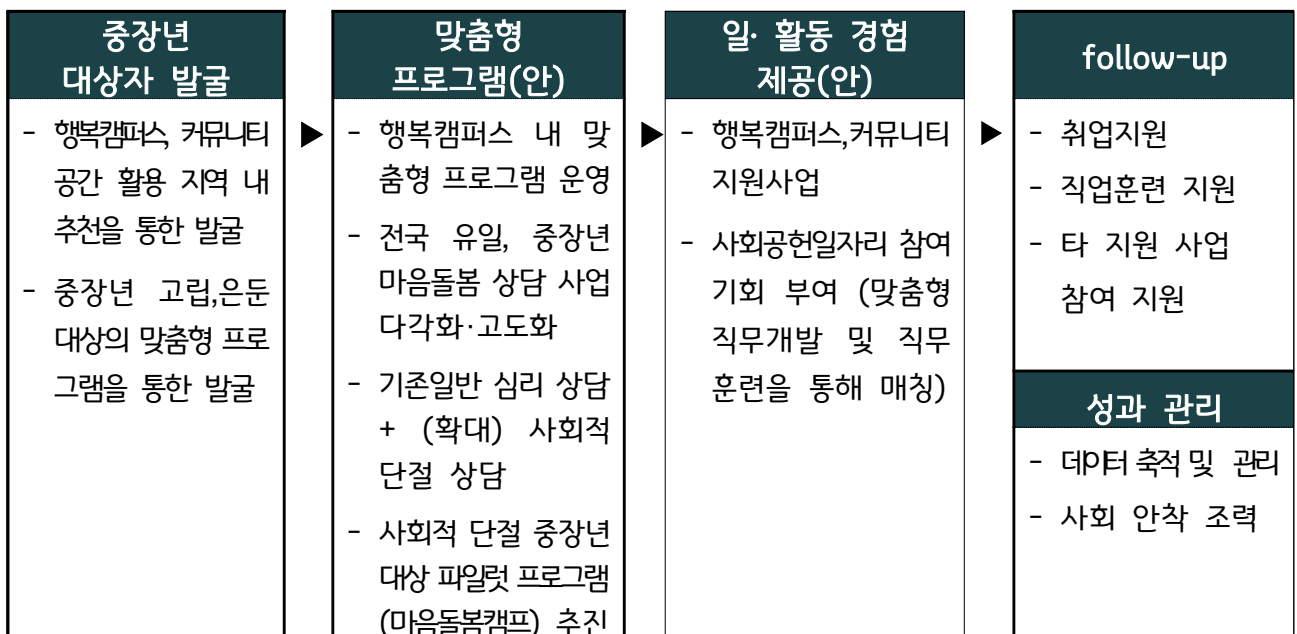
[유형별 접근]

- 장기 누적형 → 관계 형성, 기초 사회참여 중심 (연령통합적 관점의 컨트롤 타워 필요)
- 전환기 붕괴형 → 역할 회복, 빠른 재연결 중심(사전 예방적 관점이 효과적)

[정책 방향]

- 상담-활동-일 경험을 연결하는 통합 구조 구축
- 생애전환 상담, 마음돌봄 상담 체계 고도화
- 행복캠퍼스 등 지역 거점의 실질적 허브화
- 중장년 커뮤니티 공간 확산
- 지역사회 기반 사회공헌 일자리 재구조화 : 유형별·단계별 참여가 가능한 일 경험 시스템 구축

[프로세스(안)]



토론6

고립·은둔 청년 및 중장년 일경험 지원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박규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 고립·은둔 생활인의 주요 계기의 복합성

- 경기도 청년들의 고립·은둔의 계기(중복 응답)는 '직업에 관련된 어려움(취업 준비, 실직, 퇴직 등)'이 29.2%로 가장 많았으며, '대인관계와 관련된 어려움'이 18.6%, '특별한 이유는 없음'이 17.2%로 나타났음(박규범 외, 2024)
- 경기도 중장년들의 은둔의 이유(1순위)는 '신체·정신적 어려움'이 19.5%로 가장 많았으며, '특별한 이유는 없음'이 13.6%, '퇴직 및 실직'이 13.2%로 나타났음(박규범 외, 2025)
- 직업과 관련된 어려움이 높게 나타났고, 건강 및 사회적 관계에 대한 어려움 또한 높았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음'이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 '특별한 이유는 없음'은 자신의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거나, 이유를 알고 있으나 말하기 싫거나, 하나의 이유가 아닌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등으로 해석이 가능함
- 따라서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고립·은둔 생활인들의 상태 및 욕구의 복합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 장기화된, 장기화될 수 있는 비경제활동 기간이 내포하는 위험

-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들은 고립·은둔 기간이 길어질수록 소득 및 구직활동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음(박규범 외, 2024)
- 경기도 은둔 중장년은 비은둔 중장년에 비해 경제활동 참여율이 매우 낮았으며, 은둔 기간과 비경제활동 기간은 연관성이 높았음(박규범 외, 2025)
- 비경제활동 기간이 장기화된 고립·은둔 생활인에게 갑자기 경제활동을 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기에 이들에게 일경험은 경제활동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음
- 그러나 중장년의 경우 과거와 완전히 일치하는 사회 복귀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그들도 그 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기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회복(현실 속에서의 최소한의 존엄 회복)이 필요함
- 무엇보다 고립·은둔 상태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며, 설령 들어가더라도 금방 나올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마련해주는 사회 풍토가 조성되어야 함

□ 일경험 선정 기준의 재정의 필요

- '취약' 및 '역량'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립·은둔 생활인들의 물리적·심리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프로그램 선정 기준을 없애거나 낮추는 '무조건성'은 고립·은둔 생활인들이 스스로를 '문제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낙인 효과를 방지할 수 있음
- 선정 기준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고립·은둔 생활인들이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객체'가 아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연스럽게 섞이게 하며, 긍정적인 '좋은 경험'의 축적으로 이어져 사회적 효능감과 연대감을 회복시킬 수 있음

□ 고립·은둔의 비선형적 회복

- 고립·은둔의 회복은 '회복-정체-후퇴-재은둔'이 반복되는 비선형적·나선형적 과정임
- 고립·은둔 생활인의 일경험 활동 유형을 진입단계부터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경험 활동 중간에도 변동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설계가 필요함
- 일경험이 고립·은둔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됨

□ 사회복지프로그램 병행 필요

- 일경험 단독 프로그램으로는 온전한 효과를 내기 어렵기에, 일(직무)-배움(자립 역량)-생활(돌봄)이 결합된 모델을 통해 심리상담, 일상 회복 지원 등이 병행되어야 함
- 불규칙적인 수면 패턴, 식사 습관 등 '결핍의 일상화'를 깨뜨릴 수 있는 생활관리 코칭을 일경험 과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일경험이 가지는 한계를 인정

- 사회진출에 대한 어려움이 큰 고립·은둔 생활인들을 위해 이윤 추구보다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중시하는 일경험을 먼저 제공해야 함
- 세상이 두렵고 무서운데 나와서 일경험을 하라는게 부담스러울 수 있기에 일경험의 표피를 쓴 고립·은둔 생활인들의 놀이터를 만드는게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양적 성과 지표에서 벗어나 활동 에너지 변화, 사회관계망 수준, 자아존중감 회복 등 관계 기반형 성과 관리 지표가 필요함

□ 고립·은둔 생활인들에게 일의 의미

- 일은 단순한 소득 수단을 넘어 '자기 긍정(자신감)'과 '사회성(안전감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과정임

60 고립·은둔 청년 및 중장년 일경험 지원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스스로 감당 가능한 수준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현실 속에서의 최소한의 존엄'을 회복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는 데 일의 의미가 있음

□ 지역사회 연대의 중요성

○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약화가 고립·은둔의 구조적 원인인 만큼, 지역사회 내의 '사회안전망', '생활 기술 지원망' 등을 구축해야 함

○ 고립·은둔 생활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상적 동선 내에 '저문턱 상시 거점'을 마련하여 지역사회가 언제든지 그들을 환대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어야 함

○ 사회를 통해 고통을 받았다면, 사회를 통해 치유를 받아야 함

